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형민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박진우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이슈가 사회적 갈등 사안의 성격을 지니는 원인을 정파적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택적 노출과 원자력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이슈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 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 정파적 언론의 선택적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여론의 양극화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관련 정보를 보수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수용자일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했고, 원자력 관련 정보를 진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수용자일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했다. 한편,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보수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소식을 접하는 수용자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고,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 중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했다.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언론 보도의 정파성이 한수원과 공중 간의 관계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원자력발전 관련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기제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KEY WORDS 선택적 언론 노출 • 조직-공중 관계성 •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결정 • 구조방정식

* 본 연구는 2018년도 전기 성신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하에 수행되었음.

** hmlee@sungshin.ac.kr, 제1저자

*** creativejw1019@gmail.com, 교신저자

1. 서론

2017년 7월 24일 공식 출범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약 3달가량의 활동을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론화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다. 공론 조사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2박 3일의 합숙 토론을 통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은 계속 진행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당시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속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새로운 시도라는 높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둘러싸고 산적한 사회 갈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다른 의미로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습득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에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나 직접적인 정보 추구를 위한 통로는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안전성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은 원자력발전에 관련한 의사 결정과 여론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원자력발전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관련 소식을 접하는데 있어 언론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형민·박진우·한동섭·2015; 한동섭·김형일, 2011).

이런 맥락에서 언론은 시민들의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관련 국내의 언론 보도는 특히 언론사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 편향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정파적 편향성을 가진 원자력발전 관련 보도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언론에 선택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일반 시민들이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

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편향적 언론 보도, 선택적 노출은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여론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오미영, 2011; 이재경, 2008; 이형민 외, 2015). 주지하다시피 여론의 양극화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속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확산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 원자력발전 관련 선택적 언론 정보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의사 결정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PR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려 한다. 조직-공중 관계성은 '공중(조직)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할 것을 시도하는 조직(공중)에 대한 공중(조직)의 인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6개의 하위 구성 요인(신뢰, 상호 통제, 만족, 공공 관계, 교환 관계)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뤄진다(Hon & Grunig, 1999). 조직-공중 관계성은 조직과 공중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통해 해당 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에 관한 이슈를 뉴스, 즉 언론을 통해 접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언론의 선택적 노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론적으로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에선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 선택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동시에 원자력발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편, 다양한 선행 연구(Kang & Yang, 2010; Ki & Hon, 2007)에서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바,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원자력발전 관련 수용자의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자력발전 관련 소식을 진보 언론을 통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앞서 살펴본 보수 언론에 노출된 수용자와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원자력발전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방

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력 관련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과 그들이 한수원과 형성하고 있는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언론이 원자력 이슈 관련 건전한 담론 경쟁을 유도하는 공론장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진단함과 동시에, 원자력 정책 관련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 한수원과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런 차원의 고민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속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2. 이론적 논의

1) 정파적 관점에서의 원자력 관련 보도와 뉴스 소비자의 선택적 언론 노출

(1) 정파적 관점에서의 원자력 언론 보도

사람들은 다른 분야보다 사전 지식 혹은 관심도가 일반적으로 낮은 과학 기술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대적으로 언론 보도 내용과 뉴스가 구성된 방식, 즉 뉴스 프레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Scheufele & LeswNSTein, 2005; Schutz & Wiedemann, 2008). 특히 원자력발전 관련 내용은 다른 과학 기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 환경적 영향, 정책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박진우 외, 2014).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한 여론 환경 조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이슈의 순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각되거나 공론화되고, 한편으로는 소멸되기 때문이다(이형민 외, 2015; 조삼섭·김영욱, 2009). 나아가 언론은 이슈에 관한 담론들이 경쟁할 수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의 원자력 관련 보도는 원자력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이형민 외, 2015).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보도할 때에도 언론 매체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최윤정, 2016). 언론학자 터크만(Tuchman, 1978)은 이런 현상에 대해 “뉴스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한 미디어의 구성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뉴스는 실제 현실이 아니라 뉴스 제작자가 생각하는 대로 틀 지워진 현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일정한 형식의 프레임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뉴스를 통해 묘사되는 현실은 해당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 매체가 선택, 강조, 배제의 방식을 통해 구성된 매개된 현실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은 언론 매체가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특정 이슈나 현상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Entman, 1991).

특히 원자력 관련 보도는 원자력발전에 따른 이점과 위험이 비교적 명확하게 공존하는 이슈의 특성상, 언론 매체에 따라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신해정 외, 2012). 이익과 손실의 평행선 위에 다양한 차원의 이슈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이슈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특성을 보인다(박진우 외, 2014). 원자력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다양한 이슈, 이해관계자들의 존재는 언론사의 편집 방침에 발맞춰 뉴스 보도를 통해 특정한 현실을 부각하거나 배제시키게 된다.

원자력 이슈 관련 보도를 분석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은 이런 프레임 형성과 구축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갠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1970년대에는 원자력에 대한 개발 담론이 주를 이루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선 원자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 환경 담론과 개발 담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해정 외(2012)의 연구에서는 원자력 이슈를 효용성 있는 에너지원 혹은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편향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고, 박진우 외(2014)의 연구에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정파적 성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블랙아웃 사고 이후 보도 프레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에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프레임의 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 효용 프레임을 강조하고, 진보 언론은 안전 환경 프레임을 부각시켰다(정운갑·장성호·고경민·박성진, 2016). 이는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개발 담론과 진보 언론에서 중요시하는 환경 담론에 원자력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조응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최윤정(2016)의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 분석을 넘어서 원자력 안전성 확보 및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 자료와 언론 보도 이슈를 비교해 각각이 구성하는 원자력 안전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 규명되었다. 한준(2018)의 연구에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관련 보도를 <조선일보>와 <한겨레>로 나누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선일보>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임시 중단이나 혹은 영구 중단 결정으로 초래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공사 중단을 부각시켰고, <한겨레>는 공론화 과정 자체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연결시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써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이런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미뤄 볼 때, 원자력 관련 보도는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으로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이한 뉴스 프레임은 수용자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 이슈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동 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문정·차희원, 2007; Levendusky, 2013).

(2) 뉴스 수용자의 인지 부조화와 선택적 언론 노출

개인의 정보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본인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나 상황을 접하면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Festinger, 1957).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기존 생각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일치하는 인식을 새롭게 추가하며, 불일치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고 일치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흡연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담배를 끊기 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Gibbons, Egglestone, & Benthin, 1997). 이는 흡연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인식과 실제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를 최소화하는 심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를 줄이는 과정에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황유선, 2013).

수용자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행태에도 인지 부조화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인식과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불편해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행위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노출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때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인식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려는 선유 경향을 의미한다(Klapper, 1960). 일군의 학자들은 이러한 선택적 노출을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 혹은 태도에 반대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 낭비를 피하고자 선택적인 노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Ditto & Lopez, 1992; Ditto, Scepansky, Munro, Apanovitch, & Lockhart, 1998). 본인의 신념과 다른 정보를 단순히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정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선택적 노출로 이어지기도 한다(Fischer, Jonas, Frey, & Schulz-Hardt, 2005).

이렇듯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뉴스 정보를 소비하고, 그렇지 않은 뉴스 매체는 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매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수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와 채널이 증가하면서 선택적 언론 노출 현상은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이소영, 2014).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파적 뉴스 매체의 정치적 의도하에 구성된 뉴스는 선택적 해당 이슈의 진행 과정 및 의미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뉴스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인식에 부합되는 정파적 뉴스 매체에 선택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현실에 더욱 많은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Arceneaux, Johnson, & Cryderman, 2013). 선택적 언론 노출이 뉴스의 프레임에 따른 미디어 효과를 좀 더 공고하게 혹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보도는 언론사의 정파적 성격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선택적 노출 현상과 연결시켜 본다면 보수 언론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수용자들은 원자력의 경제성으로 대별되는 친 원자력 담론에, 진보 언론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수용자들은 원자력의 환경오염 가능성과 위험성으로 대별되는 반원자력 담론에 경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의 정파적, 편향적 원자력 관련 보도 관행과 수용자들의 선택적 노출로 야기되는 정보 습득의 편향

성은 여론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노정규·민영, 2012; 오미영, 2011). 본 연구는 이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보도의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 예상되며, 진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보수 언론의 결과와는 반대로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이라 추측된다.

2) 조직-공중 관계성

조직-공중 관계성(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은 PR 분야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어떠한 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공중들 간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 장기적,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김효숙·양성운, 2014). 이런 차원에서 조직-공중 관계성은 ‘조직과 공중이 서로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형석·이현우, 2008). 조직-공중 관계성을 ‘조직과 공중 사이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결과물(Bruning & Ledingham, 1999)’, ‘조직과 공중 간의 상호작용, 교환, 연결 등의 경향 혹은 조직과 핵심 공중 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Broom, Casey, & Ritchey, 2000)’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공중 관계성 개념의 태동과 이론적 발전을 통해 PR 분야는 일방적인 조직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성 증진을 도모하는 관계성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차원으로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였다(Ledingham & Bruning, 2000). 조직과 공중이 모두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계성 관리의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Men, 2012). 이런 관계성의 증진과 상호 호혜적 관계의 유지는 쌍방 간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Huang, 2001).

조직-공중 관계성의 핵심 요인으로 그루닉과 레퍼(Grunig & Repper, 1992)는 상호성, 신뢰, 상호 정당성, 공개성, 상호 만족, 상호 이해 요인을, 레딩햄과 부르닝(Ledingham & Bruning, 1998)은 개방성, 신뢰, 관여, 헌신, 투자의 다섯 가지 요인을 제안했다.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은 상호 통제, 신뢰, 만족, 헌신, 교환 관

계, 공공 관계의 여섯 가지 요인을 조직-공중 관계성 측정 척도로 제안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6개의 요인은 오늘날까지 조직-공중 관계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받아들여진다(Ledingham, 2006). 척도 개발과 함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인의 제안이 이뤄졌는데 중국 문화의 맞는 공중 관계성 요소로 체면과 혜택(Huang, 2001), 한국적 공중 관계성 요인으로 혼과 그루닉의 요인 중 상호 통제성을 커뮤니케이션 균형성으로 재정의하고 한국적 정서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으로 애착 요인을 추가한 연구(김형석 · 이현우, 2008)도 있다.

조직-공중 관계성의 후행변수 탐색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이뤄졌다.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주로 우호적 조직-공중 관계성 지각이 조직의 PR 활동 및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뤘다. 기와 혼(Ki & Hon, 2007)의 연구에선 공중이 특정 조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관계성으로 정의하고, 이런 관계성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강과 양(Kang & Yang, 2010)은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비영리단체와 공중 간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차원에 대입해, 관계 형성 과정에서의 공중의 인식, 관계 형성에 관련한 공중의 태도, 관계 지속이라는 공중의 행위 의도 각각에 조직-공중 관계성이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2개의 연구 결과 모두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위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Yang, 2007)은 비슷한 맥락에서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조직의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냈고, 나아가 구전 커뮤니케이션(word-of-mouth)이란 행위 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구자은(2011)의 연구에선 국립대학병원 홈페이지에서의 소통을 통해 형성된 조직-공중 관계성이 대학병원 이미지와 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김봉철, 최명일, 그리고 배정호(2014)의 연구에서도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공공 기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조직-공중 관계성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렇듯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해당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양한 실증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조직-공중 관계성의 선행 변수 탐색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브루닝, 드미그리오, 그리고 엠브리(Bruning, DeMiglio, & Embry, 2006)의 연구에선 조직-공중 관계성에서 파생되는 이익(benefit in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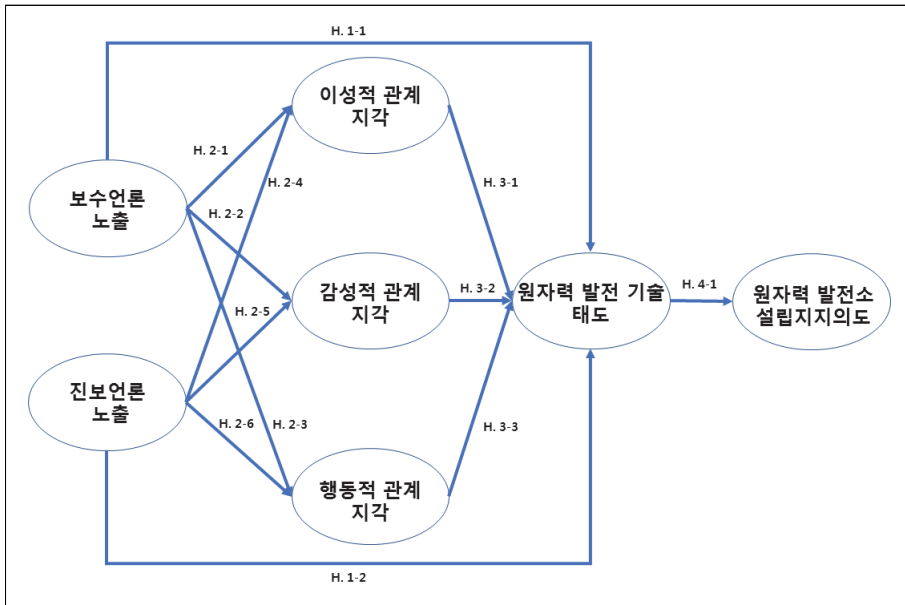
이란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했다. 이들은 조직-공중 관계성이 본인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집단,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집단,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으로 구분해 세 집단 간의 판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직과 공중 간의 상호 이익에 대한 인식이 조직-공중 관계성의 질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밝혀냈다. 보트리(Bortree, 2011)는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동시에 탐색한 연구에서, 관계성 구축 활동(relationship building activities)이란 선행 변수와 관계성의 질, 그리고 관여라는 매개 변수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미래 행동 의도(future intended behavior)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수원의 조직-공중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변수로 공중의 원자력 관련 보도의 선택적 언론 노출을 상정하고자 한다. 정파적 성격을 가진 편향된 원자력 관련 보도에 선택적으로 노출되는 수용자들은 한수원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뉴스에 선택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들은 원자력 주관 기관인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뉴스에 선택적, 반복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들은 역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추측하였다. 또한 조직-공중 관계성이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 착안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본 연구는 한수원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의 결과로 형성되며, 그렇게 형성된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연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매개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가설

이형민 외(2015)는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그림 1. 연구 모형



인 영향만을 연구 대상으로 상정하고 둘 사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변인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태도-형성 모델’(Eagly & Chaiken, 1993)은 수용자의 인지적 정보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 이들 변인이 하나의 심리적 흐름 속에 유기적인 인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조명한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 본 연구는 선택적 언론 노출의 결과로 형성되는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을 주요한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 관련 태도와 행동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박진우 외, 2014; 이형민 외, 2015) 원자력발전 관련 언론 보도는 언론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담론을

부각시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고, 진보 언론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환경 담론을 부각시키며 부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이렇듯 상이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선택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는 기존의 수용자 태도를 강화하여 시민 내부의 극화를 초래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Garrett et al., 2014; Stroud, 2010). 최근 수행된 일련의 실험 연구에서도 정파적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를 광범위하게 밝혀냈다(Arceneaux & Johnson, 2013; Leeper, 2014).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에 선택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는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일 것이며, 원자력 관련 진보 언론에 선택적으로 노출된 수용자는 그 역의 태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1-1: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 노출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1-2: 원자력 관련 진보 언론 노출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한편 레이드(Reid, 2012)의 선행 연구는 선택적 언론 노출을 자기 범주화 이론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 범주화 이론(Tajfel, 1982)은 맥락에 따라 현저하게 부각된 사회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사람들의 지각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선택적 언론 노출이 태도 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수용자들은 정치적 정체성을 준거로 선택적으로 언론 보도를 접하며 내집단과 외집단을 대비시키는 범주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내집단에 대한 동질감은 극화된 규범적 인식을 통해 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외집단은 중립적(neutral)이거나 조심스러운(cautious) 대상이기보다는 위험한(risky)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내집단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높아지고 외집단에 대한 배척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은 원자력발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에 대한 관계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수용자들이 원

자력 이슈들과 관련하여 언론을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한동섭·김형일, 2011)에 기초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자력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장에서 원자력 이슈에 관련한 담론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언론에 노출된 수용자는 한수원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성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정적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 진보 언론에 노출된 수용자는 한수원에 대해 부정적인 관계성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2: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은 한수원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1: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2: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정서적 관계 지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3: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행동적 관계 지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4: 원자력 관련 진보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5: 원자력 관련 진보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정서적 관계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2-6: 원자력 관련 보수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행동적 관계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Kang & Yang, 2010; Ki & Hon, 2007). 구체적으로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3: 한수원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3-1: 한수원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3-2: 한수원과의 정서적 관계 지각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3-3: 한수원과의 행동적 관계 지각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behavior)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호의적 혹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 수용자들은 호의적인 원자력발전 관련 행동 의도를 보일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수용자의 조직에 대한 태도가 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추한 것이다 (Ajzen & Fishbein, 2005; Fishbein & Cappella, 2006).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 연구가설 4: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 연구가설 4-1: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4.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원자력 관련 언론의 선택적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이어지는 효과 가운데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미치는 매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전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n)	백분율(%)
성별	남자	510	50.2
	여자	506	49.8
연령	20대	202	19.9
	30대	264	26.0
	40대	292	28.7
	50대	258	25.4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326	32.1
	부산광역시	46	4.5
	대구광역시	42	4.1
	인천광역시	61	6.0
	광주광역시	26	2.6
	대전광역시	29	2.9
	경기도	292	28.7
	강원도	30	3.0
	충청도	39	3.8
	전라도	38	3.7
	경상도	80	7.9
	제주특별자치도	7	0.7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	0.5
	고등학교 졸업	205	20.2
	대학교 졸업	669	65.8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상	137	13.5
합계		1016	100.0

문 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의 표본을 이용해 전국 규모의 설문 조사를 수행¹⁾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한 달간 이뤄졌으며,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고려한

1) 한국리서치는 설문 조사 과정에서 응답 수집에만 참여하였고, 구조방정식 모델 구축, 검증 및 전반적인 연구 진행은 저자가 직접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층화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해 총 1016명의 응답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분석 가능한 설문을 표집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510명(50.2%), 여성 506명(49.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령 분포는 40대가 292명(28.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4명(26.0%), 50대 이상이 258명(25.4%), 20대가 202명(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 분포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326명(32.1%)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경기도가 292명(28.7%), 경상도가 80명(7.9%), 인천광역시 61명(6.0%), 부산광역시 46명(4.5%), 대구광역시 42명(4.1%), 충청도 39명(3.8%), 전라도 38명(3.7%), 대전광역시 29명(2.9%), 광주광역시 26명(2.6%), 제주특별자치도 7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 수준 분포는 대학교 졸업자가 669명(65.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205명(20.2%), 대학원 재학 이상이 137명(13.5%), 중학교 졸업 이하가 5명(0.5%)의 분포를 보였다. 자세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2) 변인의 조작화 및 측정

(1) 독립 변인: 원자력 관련 뉴스의 선택적 노출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뉴스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이형민 외(2015)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나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로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조선, 중앙, 동아 등)을 통해 원자력 관련 뉴스를 접한다”(M = 3.56, SD = 1.43), “나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 원자력 관련 뉴스를 접한다.”(M = 3.90, SD = 1.33)의 두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의 원자력 관련 소식을 접하는 언론 이용 행태를 측정했다. 응답자는 본인의 선택적 언론 노출 성향을 7점 리커트 척도(7-point Likert scale)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뉴스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t(1015) = 8.15, p < .001$).

(2) 종속 변인: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수용자들의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는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폐쇄형 질문 중 하나인 7점 의미 분별 척도를 통해 3개 문항(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비호의적이다-호의적이다, 나쁘다-좋다, 부정적이다-긍정적이다/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가능성이 낮다-높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 불가능하다-가능하다)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오스굿, 수시, 그리고 타넨바움(Osgood, Suci & Tannenbaum, 195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어떤 요인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평가적 성향을 측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측정 항목의 기술 통계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M = 4.02$, $SD = 1.36$, $\alpha = .95$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M = 3.50$, $SD = 1.60$, $\alpha = .98$)

(3) 매개 변인: 공중이 인식하는 한수원과의 조작-공중 관계성

조작-공중 관계성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해 측정했다. 측정 항목은 혼과 그루닉(Hon & Grunig, 1999)의 연구를 비롯해 기존의 연구를 재활용하여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변인을 찾고자 한 김형석과 이현우(2008)의 연구에서 번역 활용된 척도들을 활용하였다. 기존 측정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베리맥스 직각 회전 방식을 이용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 척도 개발 선행 연구들의 방법론에 따라 특정 문항의 요인 적재값이 일정 기준의 절반 이하인 경우, 해당 문항을 제거하는 원칙으로 이뤄졌으며 측정 문항의 제거를 위한 요인의 적재값을 .50 이하로 상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하나씩 문항을 제거한 후 반복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Hair, Anderson, & Tatham, 1998). 그 결과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 균형성, 그리고 공동체 관여의 일부 문항들이 모여 하나의 요인을 이루었고, 김형석과 이현우(2008)가 한국적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으로 개발한 애착 요인, 그리고 충실성 요인이 각각의 요인을 이루었다. 최종적인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 1을 기준으로 총 3개의 항목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 변량은 73.35%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뢰성과 커뮤니케이션 균형성, 그리고 공동체 관여의 문항의 조합으로 생성된 15개 문항의 첫 번

표 2. 한수원 조직-공중 관계성 측정 문항 및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인지적 관계 지각 ($M = 3.08,$ $SD = 1.06$)	정서적 관계 지각 ($M = 3.19,$ $SD = 1.17$)	행동적 관계 지각 ($M = 3.67,$ $SD = 1.14$)
	요인 적재량		
한수원은 나/우리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한다	.82	.20	.21
한수원은 건전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80	.22	.25
한수원은 나/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80	.34	.18
나/우리와 한수원은 모두 의사 결정 과정에 만족하고 있다	.80	.38	.09
한수원이 한 약속은 비교적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79	.23	.24
한수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우리를 고려한다	.78	.21	.15
한수원은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76	.37	.16
한수원은 솔직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76	.27	.23
한수원은 나/우리의 질문이나 의견에 신속하게 대답해 준다고 생각한다	.76	.31	.20
한수원은 나/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고맙게 생각한다	.75	.31	.14
한수원은 나/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73	.42	.16
한수원은 나/우리의 복리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73	.41	.19
한수원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71	.23	.24
한수원은 미래를 위한 계획에 열려져 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8	.31	.38
한수원은 사회 전반(지역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쏟고 투자하고 있다	.68	.42	.19
한수원을 아끼고 의지하고 있다	.36	.80	.18
한수원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쉬움과 미련이 남을 것이다	.23	.79	.28
한수원이 없어진다면 허전해 할 것이다	.18	.78	.28
한수원에 정이 들었다	.42	.78	.12
한수원에 대해 오랜 친구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41	.78	.12
한수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안타깝고 속이 상할 것이다	.24	.77	.27
한수원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52	.71	.13
한수원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	.42	.62	.30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항	인지적 관계 지각 ($M = 3.08,$ $SD = 1.06$)	정서적 관계 지각 ($M = 3.19,$ $SD = 1.17$)	행동적 관계 지각 ($M = 3.67,$ $SD = 1.14$)
	요인 적재량		
한수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1	.27	.85
한수원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33	.30	.77
다른 공기업보다 한수원과의 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41	.37	.62
아이겐 값(eigenvalue)	15.80	2.10	1.17
설명량(%)	60.78	8.07	4.51
누적 설명량(%)	60.78	68.84	73.35
Cronbach's Alpha	.97	.95	.85

째 요인을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으로, 애착에 해당하는 두 번째 요인 8개 문항을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으로, 충실성에 해당하는 세 번째 요인 3개 문항을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김형석과 이현우(2008)의 선행 연구에선 커뮤니케이션 균형성 요인과 공동체 관여 요인이 신뢰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신뢰성 요인이 전술한 2요인과 중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이 인지적 관계 지각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애착 요인은 앞서 언급한 인지적 관계 지각의 반대되는 속성인 정서적 관계 지각의 속성을 나타내어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충실성 요인은 크게 행동적 관계 충실성 속성과 정서적 관계 충실성 속성 중 행동적 관계 충실성에 해당하는 문항(Hon & Grunig, 1999)만 요인 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측정 항목과 요인 분석, 기술 통계값,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문항 간 신뢰도 점검결과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 값이 .97,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 값이 .95,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의 크론바하 알파 값이 .85로 나타나 요인별 내적 신뢰성을 담보(Nunnally, 1978)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참조).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수용자들의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와 행동 의도 차원인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주효과와 공중들이 인식하는 한수원과의 공중 관계성 인식의 매개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공변량을 통해 잠재 요인들이 갖는 전체 효과를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매개 변인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09). 먼저 각 구성 개념별로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가 모두 .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확인되었다(변인의 조작화 및 측정 참조). 구조방정식 모델의 검증은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1) 모델 평가: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 도구는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 요인과 측정 변수 간의 일치 정도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 모델의 타당성이란 잠재 요인의 값을 정확히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치들이 해당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나타낸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요인의 타당성은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법칙 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학식 · 임지훈, 2009;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잠재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개 이상의 측정 항목들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이후 표준화 요인 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잠재 요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으로 평가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집중 타당성을 평가하는 표준화 요인 부하량(평가 기준

표 3.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

측정변수	잠재 요인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	p	표준화 요인 부하량	평균 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
보수 언론 노출1	보수 언론 노출	0.89	-	-	-	.95	.90	.90
진보 언론 노출1	진보 언론 노출	0.89	-	-	-	.94	.89	.89
인지적1 ←	인지적 관계 지각	1	fix	-	-	.83	.69	.97
인지적2 ←		1.00	.03	30.20	***	.78		
인지적3 ←		1.02	.03	33.44	***	.83		
인지적4 ←		1.03	.03	33.18	***	.83		
인지적5 ←		0.93	.03	28.49	***	.75		
인지적6 ←		1.02	.03	32.46	***	.82		
인지적7 ←		1.01	.03	31.84	***	.81		
인지적8 ←		1.06	.03	36.39	***	.88		
인지적9 ←		1.00	.03	32.16	***	.81		
인지적10 ←		0.98	.03	33.33	***	.83		
인지적11 ←		1.01	.03	35.94	***	.87		
인지적12 ←		1.05	.03	34.37	***	.85		
인지적13 ←		1.01	.03	32.41	***	.82		
인지적14 ←		1.06	.03	34.89	***	.86		
인지적15 ←		1.04	.03	35.03	***	.86		
정서적1 ←	정서적 관계 지각	1	fix	-	-	.77	.70	.95
정서적2 ←		1.15	.04	31.56	***	.88		
정서적3 ←		1.13	.04	31.69	***	.89		
정서적4 ←		1.12	.04	28.26	***	.81		
정서적5 ←		1.16	.04	27.54	***	.79		
정서적6 ←		1.12	.04	26.68	***	.77		
정서적7 ←		1.12	.04	31.26	***	.88		
정서적8 ←		1.09	.04	31.14	***	.87		
행동적1 ←	행동적 관계 지각	1	fix	-	-	.85	.66	.85
행동적2 ←		0.97	.04	28.05	***	.79		
행동적3 ←		0.97	.04	27.81	***	.79		

측정변수	잠재 요인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	p	표준화 요인 부하량	평균 분산 추출 (AVE)	개념 신뢰도 (C.R)
발전 기술 태도1 ←	발전 기술 태도	1	fix	-	-	.89	.85	.94
발전 기술 태도2 ←		0.99	.02	47.06	***	.93		
발전 기술 태도3 ←		1.03	.02	48.36	***	.94		
발전소 설립 의도1 ←	발전소 설립 의도	1	fix	-	-	.97	.95	.98
발전소 설립 의도2 ←		1.03	.01	95.20	***	.98		
발전소 설립 의도3 ←		0.99	.01	87.54	***	.97		

≥ .5), 평균 분산 추출(평가 기준 ≥ .5), 잠재 요인 신뢰도(평가 기준 ≥ .7)가 모두 집중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가 집중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참조).

측정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은 한 잠재 요인이 다른 잠재 요인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의미하는 판별 타당성이다. 이는 한 잠재 요인이 측정하는 것은 다

표 4. 잠재 요인 간 판별 타당도 분석 결과

	AVE	보수 언론 노출	진보 언론 노출	인지적 관계 지각	감성적 관계 지각	행동적 관계 지각	원자력 발전 기술 태도	원자력 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보수 언론 노출	.90							
진보 언론 노출	.89	.05						
인지적 관계 지각	.69	.09	.01					
정서적 관계 지각	.70	.07	.01	.61				
행동적 관계 지각	.66	.03	.000	.50	.51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85	.10	.04	.21	.16	.16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94	.16	.06	.22	.15	.11	.66	

른 잠재 요인이 측정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측정 모델의 요인들이 판별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7개의 잠재 요인에 대한 평균 분산 추출 값과 잠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제곱 값을 비교한 결과 판별 타당성 기준에 부합하게 모든 잠재 요인의 평균 분산 추출 값이 상관관계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표 4 참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적합도 지수는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RMSEA와 CFI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로 추천되고 있으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가급적 여러 개의 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홍세희, 2000). 분석 결과 RMSEA 적합도 지수와 CFI 적합도 지수 모두 최적 모델의 기준치를 만족시켰다. 잠재 요인들 간에 설정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 모델(structural model)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RMSEA 적합도 지수의 경우, .039로 매우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FI 지수도 .981로 최적 모델의 기준치를 만족시켰다. 그 밖에 구조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표 5〉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5. 모델 적합도 평가

적합도 지수		구조 모델	최적 모델 기준치
절대 적합도 지수	<i>P</i>	.000	$P \geq .05$
	Chi-square	1107.544	
	<i>df</i>	437	
	Chi-square/ <i>df</i>	2.534	Chi-square/ <i>df</i> ≤ 3.0
	RMSEA	.039	$P \leq .05$
증분 적합도 지수	NFI	.969	$P \geq .90$
	IFI	.981	$P \geq .90$
	TLI	.976	$P \geq .90$
	CFI	.981	$P \geq .90$

2) 연구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연구가설 1〉과 관련하여 선택적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가설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보수 언론 노출($\beta = .21, t = 6.70, p < .001$)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보 언론 노출($\beta = -.13, t = -4.43, p < .001$)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 관련 정파적 언론에 대한 선택적인 노출이 수용자들의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이형민 외, 2015).

다음으로 〈연구가설 2〉는 선택적 언론 노출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가설 2-1〉에서 〈연구가설 2-3〉은 보수 언론 노출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의 세 가지 차원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설이고, 〈연구가설 2-4〉에서 〈연구가설 2-6〉은 진보 언론 노출이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의 세 가지 차원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설이다. 검증 결과 보수 언론 노출은 한수원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 정서적 관계 지각, 행동적 관계 지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2-1, 2-2, 2-3 지지). 표준화된 경로 계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인지적 관계 지각($\beta = .29, t = 8.71, p < .001$), 정서적 관계 지각($\beta = .27, t = 7.92, p < .001$), 행동적 관계 지각($\beta = .21, t = 5.89, p < .001$) 순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 소식을 진보 언론을 통해 접한 수용자들은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2-4〉, 〈연구가설 2-5〉, 〈연구가설 2-6〉 기각).

〈연구가설 3〉은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검증 결과, 인지적 관계 지각($\beta = .31, t = 5.31, p < .001$)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연구가설 3-1〉 지지), 정서적 관계 지각과 행동적 관계 지각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3-2〉, 〈연구가설 3-3〉 기각). 보수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한 수용자들은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의 3가지 요인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는 세 가지 요인 중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영향을 미쳤다.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이 기존의 전통적 의사 결정 모형인 위험-편익 분석(risk-benefit analysis) 혹은 기대 효용 이론(expected utility theory)과 같이 편익이 발생하는 관계라고 인식할수록 발전 기술 태도에 호의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Finucane, Alhakami, Slovic, & Johnson, 2000). 한수원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수원이 편익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과 연결이 되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연구가설 4〉는 경로 분석의 마지막 단계인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가 행동 의도 차원인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관점(Ajzen, 1991) 혹은 심리학에서 차용한 ‘태도-형성 모델(Eagly & Chaiken, 1993)’에서 특정 인식을 통해 형성된 태도는 행위의도에 매우 강력한 수준의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기의 다양한 선행 연구와 이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는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강력한 정적인 영향력($\beta = .84, t = 6.70, p < .001$)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가설 4-1〉 지지). 이는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가 강한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한 경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과 한수원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중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보수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를 설명하는 경로에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소식을 접하는 수용자들일수록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 중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에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두 가지 조직-공중 관계성 요인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진보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소식을 접하는 수용자들일수록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직접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매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자세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2〉로 기술하였다.

또한 원자력발전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이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을 매개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그림 2. 연구가설 검증 결과(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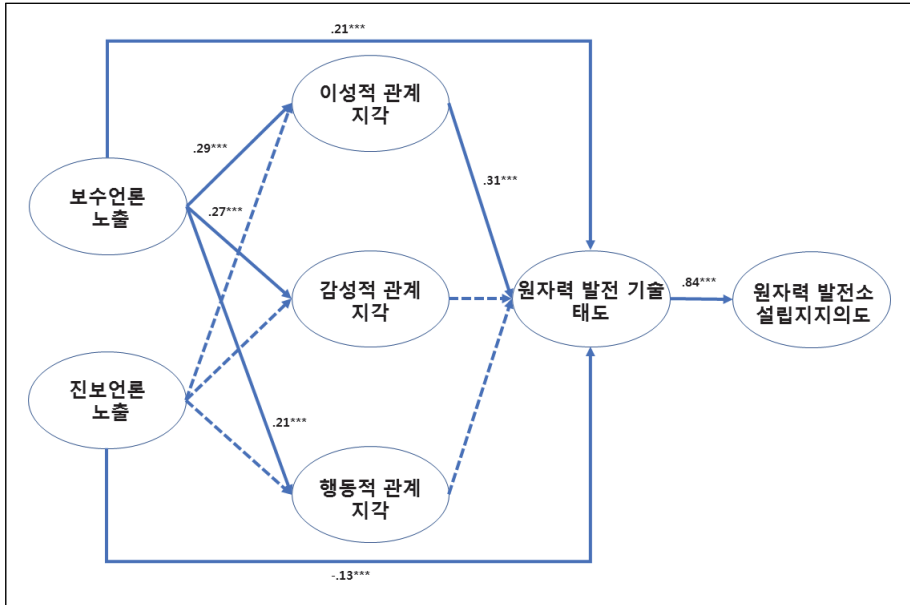


표 6. 연구가설 검증 결과(표)

연구 가설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	표준화 경로 계수	p	검증 결과
1-1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 보수 언론 노출	.19	.03	6.70	.21	***	지지
1-2		← 진보 언론 노출	-.13	.03	-4.43	-.13	***	지지
2-1	이성적 관계 지각	← 보수 언론 노출	.19	.02	8.71	.29	***	지지
2-2	감성적 관계 지각	← 보수 언론 노출	.18	.02	7.92	.27	***	지지
2-3	관계 유지 총실성 지각	← 보수 언론 노출	.14	.02	5.89	.21	***	지지
2-4	인지적 관계 지각	← 진보 언론 노출	-.04	.02	-1.57	-.05	.116	기각
2-5	정서적 관계 지각	← 진보 언론 노출	-.03	.03	-1.12	-.04	.264	기각
2-6	행동적 관계 지각	← 진보 언론 노출	.01	.03	0.20	.01	.845	기각
3-1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 인지적 관계 지각	.42	.08	5.31	.31	***	지지
3-2		← 정서적 관계 지각	.09	.07	1.22	.07	.224	기각
3-3		← 행동적 관계 지각	.11	.07	1.64	.09	.102	기각
4-1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97	.03	35.33	.84	***	지지

수용자들의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한 선택적 언론 노출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와 정책 지지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 효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보수 언론 노출	인지적 관계 지각	.29	.00	.29
	정서적 관계 지각	.27	.00	.27
	행동적 관계 지각	.21	.00	.21
진보 언론 노출	인지적 관계 지각	-.05	.00	-.05
	정서적 관계 지각	-.04	.00	-.04
	행동적 관계 지각	.01	.00	.01
보수 언론 노출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21	.11	.33
진보 언론 노출		-.13	-.02	-.15
인지적 관계 지각		.31	.00	.31
정서적 관계 지각		.07	.00	.07
행동적 관계 지각		.09	.00	.09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84	.00	.84
보수 언론 노출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	.00	.28	.28
진보 언론 노출		.00	-.13	-.13
인지적 관계 지각		.00	.26	.26
정서적 관계 지각		.00	.06	.06
행동적 관계 지각		.00	.07	.07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		.84	.00	.84

아보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2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경로 간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보수 언론 노출과 진보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효과가 발견되었고, 보수 언론 노출이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 가운데 인지적 관계 지각의 간접 효과 역시 발견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효과 가운데,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의 강력한 주효과가 발견됨과 동시에 보수 언론 노출, 진보 언론 노출, 인지적 관계 지각의 간접 효과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함의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개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환경성 및 안정성, 경제성, 전력 공급의 안전성에 관한 경쟁적 담론은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이형민 외, 2015). 실제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관련한 최종 설문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 건설 중단 의견이 40.5%로 나타났다(공론화위원회, 2017). 이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갈등과 담론 경쟁이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의 입장과 상이한 의견에 대한 차이를 좁히고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 중심 PR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합의 중심 PR 커뮤니케이션을 저해시키고, 여론의 양극화를 촉발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일컬어지는 편향적, 정파적 언론 보도 행태가 관계성 관리 차원에서 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을 매개하여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태도, 나아가 정책 결정 의도인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파성을 가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편향적인 원자력 뉴스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들이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서 형성하고 있는 태도를 분화시키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수 언론을 통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이 많을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었고, 반대로 진보 언론을 통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이 많을수록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 이슈가 사회적인 갈등 이슈 혹은 정치 편향적 이슈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대중·장정현·정봉훈, 2013; 박진우 외, 2014). 특히 보수 언론을 통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진보 언론을 통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원자력발전이 사회적 갈등 사안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여론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적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이

수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경도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언론의 편향적인 뉴스 보도 때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정파적 뉴스 보도 노출이 관계성 관리 차원에서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연결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는 원자력발전 관련 태도 형성이 원자력 관련 선택적 언론 노출의 결과물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이형민 외, 2015)를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을 통해 좀 더 정교하게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연구 결과 보수 언론을 통한 원자력 관련 뉴스 노출이 많을수록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중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 모두 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과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에 비해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 언론이 원자력을 바라보는 주요한 프레임인 경제 효율과 전력 수급 같은 긍정적인 담론 형성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의 선택적 노출은 뉴스 수용자들이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한수원과의 관계를 내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의 경제성과 같은 편익에 관련한 이슈는 한수원과의 이성적 차원에서의 관계성 인식에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서적 관계 지각과 행동적 관계 지각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보수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보도를 계속적으로 접하는 수용자일수록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인 한수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보 언론을 통해 원자력 관련 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들은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수 언론과는 다르게 진보 언론에서는 시민단체 혹은 환경단체,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박진우 외, 2014)들이 주요 취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계성 관리 차원에서 한수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해 각각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형성하고 공론의 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론화함으로써 의미와 해석의 틀을 공유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김영욱, 2012). PR 커뮤니케이션을 이슈 관리와 담론 경쟁의 측면에서 이해하려 할 때, PR의 역할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담론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보수 언론은 원자력발전의 효용성을 다양한 취재원들을 통해 부각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을 담당하는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진보 언론은 시민단체 혹은 환경단체와 같이 원자력발전보다는 원자력발전의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다른 취재원을 활용함으로써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상이한 취재원 활용이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늘날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의 중심 커뮤니케이션과 속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공론장에서의 속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원자력발전 운영 기관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이뤄지는 토론은 속의 과정을 거친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여론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과 행동적 관계 지각 요인은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원자력발전을 비용-편익 모델 관점에 비추어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뉴케인과 동료들(Finucane et al., 2000)은 원전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줄어들면 지각된 이익이 증가하고, 지각된 위험이 증가하면 지각된 이익이 줄어드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런 맥락과 비슷하게 지각된 편익과 비용이 원전 수용성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원전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높을수록 원전을 수용하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인식될수록 원전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규명(송해룡·김원제, 2012; 심준섭, 2009)하기도 했고, 원자력 효용 인식이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한동섭·김형일, 2011). 한수원과의 조직-공중 관계성에서의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은 한수원에 대한 신뢰, 한수원이 공동체에 주는 이익, 한수원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노력과 같은 편익과 직결되는 관계성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서적 관계 지각 요인, 행동적 관

계 지각 요인과 같은 심리적으로 보다 관여도와 충실성이 높아지는 차원의 요인에서는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한수원의 PR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한수원과 공중과의 인지적 관계 지각 요인만이 원자력발전 기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한수원이 공중과의 관계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중과 좀 더 내면화된 충실한 관계 혹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원자력발전 관련 언론 보도의 선택적 언론 노출을 측정하는 문항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함으로써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파 언론에 대한 신뢰도와 열독 여부, 응답자 정치 성향과의 연관성 등을 중복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택적 언론 노출을 측정하는 두 문항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뤄보아 ($r = .05$), 두 문항은 상호배타적인 문항이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노출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응답자(예: 보수 언론 노출 - 진보 언론 노출 = 0)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 역시 후속 연구에서 면밀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자력발전소 설립 지지 의도를 찬성과 반대로 묻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없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그럴 것 같다, 불가능하다-가능하다'의 의미 분별 척도로 질문해 액면 타당도(face validity)가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좀 더 엄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간의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을 관계성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 공중과의 관계 악화 혹은 쇠퇴를 진단하기 어려웠고 진보 언론 노출이 조직-공중 관계성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수원에 대한 불만(dissatisfaction), 불신(distrust), 관계 해지(dissolution), 지배 통제(control dominance)와 같은 부정적 차원에서의 조직-공중 관계성을 함께 측정해 좀 더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수용자가 원자력 관련 언론 보도의 선택적 노출을 결정하는 가장 큰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원자력 관련 언론 보

도의 선택적 노출이 한수원에 대한 조직-공중 관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했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후속 연구에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수준,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의 조절 효과, 원자력발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수준인 노출량,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여도를 통제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면 좀 더 분명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 구자은 (2011). 홈페이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한 조직-공중 관계성이 조직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권 4호, 138~173.
- 강문정·차희원 (2007). 기업명성과 공중의 이슈 프레임이 기업 정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479~507.
- 김봉철·최명일·배정호 (2014). 지방정부의 조직-공중 관계성에 관한 상호지향성 분석: 전남도청과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학연구*, 18권 4호, 1~29.
- 김영옥 (2012). 담론 경쟁으로서 PR커뮤니케이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방향성 설정. *커뮤니케이션이론*, 8권 1호, 352~386.
- 김형석·이현우 (2008).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공중 관계성 측정 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1호, 99~139.
- 김효숙·양성운 (2014). 조직-공중 관계성 이론의 발전 과정과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고찰. *홍보학연구*, 18권 1호, 476~515.
- 노정규·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226~248.
- 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고리 원자력발전소 블랙아웃 사고에 대한 매체별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31~74.
- 송해룡·김원제 (2012).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 태도와 위험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지*, 12권 6호, 238~248.
-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 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원자력 에너지 이슈의 이득-손실 틀 짓기 효과: 개인의 물질/탈물질주의적 가치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190~215.
- 심준섭 (2009).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 *한국정책학회보*, 18권 4호, 93~122.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과 인식*, 35권 3호, 39~58.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 갈등: 갈등 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론*, 4권 2호, 48~72.
- 이학식·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AMOS 16.0*. 서울: 법문사.
-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PR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6호, 233~261.

- 정운갑 · 장성호 · 고경민 · 박성진 (2016). 원자력 이슈에 대한 언론의 정파성 분석. *분쟁해결연구*, 14권 2호, 5~37.
- 조삼섭 · 김영옥 (2009). 수사학적 PR 관점에서의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보학연구*, 13권 1호, 62~96.
- 최운정 (2016). 우리는 평소 원자력 안전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29~262.
- 한동섭 · 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7권 2), 1~22.
- 한준 (2018).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언론보도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한겨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2권 2호, 145~175.
- 황유선 (2013). 선택적 노출 행위를 통해 바라본 트위터 공간의 이념적 양극화. *한국언론학보*, 57권 2호, 58~7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권 1호, 161~177.
-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i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p. 173~22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rceneaus, K., & Johnson, M. (2013). *Changing minds or changing channels?: Partisan news in an age of choic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ceneaus, K., Johnson, M., & Cryderman, J. (2013). Communication, persuasion, and the conditioning value of selective exposure: Like minds may unite and divide but they mostly tune out. *Political Communication*, 30(2), 213~231.
- Bortree, D. S. (2011). Mediating the power of antecedents in public relationships: A pilot study. *Public Relations Review*, 37(1), 44~49.
- Brunig, S. D., DeMiglio, P. A., & Embry, K. (2006). Mutual benefit as outcome indicator: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benefit in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Public Relations Review*, 32(1), 33~40.
- Brunig, S. D., & Ledingham, J. A. (1999).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and publics: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scale. *Public Relations Review*, 25(2), 157~170.
- Ditto, P. H., & Lopez, D. E. (1992). Motivated skepticism: Use of differential decision criteria for preferred and nonpreferred conclu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315~326.
- Ditto, P. H., Scepansky, J. A., Munro, G. D., & Apanovitch, A. M., & Lockhart, L. K. (1998). Motivated sensitivity to preference-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3~69.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e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Fishbein, M., & Cappella, J. N. (2006). The role of theory in developing effective health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9, 613~621.
- Fisher, P., et al. (2005).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The impact of information limi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469~492.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ety*, 95, 1~37.
- Gibbons, F. X., Egglestones, T. J., & Benthin, A. C. (1997). Cognitive reactions to smoking relapse: The reciprocal relation between dissonance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2, 184~195.
- Garrett, R. L., et al. (2014). Implications of pro-and counterattitudinal information exposure for affective polar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3), 309~332.
- Grunig, J. E., & Repper, F. C. (1992). Strategic management, publics, and issues. In J. E. Grunig (Ed.),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pp. 117~1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ir, J. F., Blac,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on, L. C., & Grunig, J. E. (1999). *Guidelines for measuring relationships in public relations*. Gainesville, FL: The Institute for Public Relations.
- Huang, Y. (2001). OPRA: A cross-cultural, multi-item scale for measuring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3(1), 61~91.
- Kang, M., & Yang, S. U. (2010). Mediation effects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utcomes on public intentions for organizational suppor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2(4), 477~494.
- Ki, E. J., & Hon, L. C. (200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measurement and linkages among relationship indicators in a membership organiz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4(3), 419~438.
- Klapper, J. T.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Chicago, IL: Free Press.

- Ledingham, J. A. (2006). Relationship management: A General theory of public relations. In C. H. Botan & V. Hazleton (Eds.), *Public relations theory II* (pp. 412~427). Manwha,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dingham, J. A., & Brunig, S. D. (1998). Relationship management in public relations: Dimensions of an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Public Relations Review*, 24(1), 55~65.
- Ledingham, J. A., & Brunig, S. D.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dimensions: Defining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he practice of relationship management. In J. A. Ledingham, & S. D. Brunig (Eds.), *Public relations as relationship management: A relational approach to public relations* (pp. 55~70). Manwha,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eper, T. J. (2014). The informational bias for mass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8(1), 27~46.
- Levendusky, M. (2013). Partisan media exposure and attitudes toward the opposi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65~681.
- Men, L. J. (2012). Revisiting the continuum of types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From a resource-based view. *Public Relations Journal*, 6(1), 1~19.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 Hill.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eid, S. A. (2012). A self-categorization explanation for the hostile media effect. *Journal of Communication*, 62(3), 381~399.
- Scheufele, D. A. & Lewenstein, B. V. (2005). The public and nanotechnology: How citizens make sense of emerging technologies.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7, 659~667.
- Schutz, H., & Wiedemann, P. M. (2008). Framing effects on risk perception of nanotechnology.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7, 369~379.
-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 The Free Press.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30일

논문심사일: 2019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elective Media Exposure and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 between the Audience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Lee, Hyung Min

Associate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Park, Jin-Woo

Lecturer,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elective media exposure regarding nuclear energy issues affects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 (OPR) between the news audience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which, in turn, may influenc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nuclear energy. The results suggested that selective media exposure lopsidedly influenced OPR between the audience and KHNP, as only selective exposure to the conservative media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PR. Further, only cognitive OP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ttitudes toward nuclear energy technologies, which, in tur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suppor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view of how to establish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communication environment for the nuclear energy issue.

KEY WORDS Selective media exposure •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OPR) • Attitude • Behavioral intention • Nuclear energy policy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First Author: hmlee@sungshin.ac.kr

** Corresponding Author: creativejw1019@gmail.com